‘청년의 목소리’ 섬에 활력 불어넣는다

한국섬진흥원, 1기 자문단 발대
활동가·사진작가 등 20명 참여

국내 섬 정책에 도전적이고 참신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대거 반영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최근 목포시 삼학도 진흥원 2층 아카데미실에서 ‘제1기 한섬원 청년자문단’이 발대식을 갖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이재훈 교류협력센터장, 각 지자체 참관단, 청년자문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경남, 울산, 서울, 인천,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섬 봉사활동가, 카페 운영자, 사진작가, 서포터즈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년이다.

단장으로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성현(44) 교수가 임명됐다.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자문단 간사는 한섬원 이재운 교류협력팀장이 맡아 기본적인 서무와 제반회의 및 회의록 정리·보관을 담당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1기 한섬원 청년자문단은 섬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주제 선정, 아이디어 제언, 제1회 한국섬포럼 홍보, 다양한 한섬원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한섬원 청년자문단이 꾸려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섬과 섬에 대한 정책 변화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도전하는 청년들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섬의 만남은 무엇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1기 청년자문단의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장은 “이번에 위촉된 이들이 섬 발전에 기여하는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난 29일 전국의 청년들로 구성된 한섬원 청년자문단이 발대식을 가진 뒤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제공〉

무안군, 치매안심센터 거리두기 해제 정상 운영

무안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했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면 프로그램과 교육을 일시중단하고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 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조기검진, 돌봄 분석, 1:1 사례관리, 조호물품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진화 무안군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와 치매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2022 영광법성단오제가 5일 난장트기 행사로 막을 올린다. 행사 모습 〈영광군 제공〉

영광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로 서막

5일 숲쟁이공원 등서 개최
난장 판굿·제굿·고사 등 행사

2022 영광법성단오제가 ‘난장트기’ 행사로 시작을 알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영광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5일 숲쟁이공원 부용교와 법성포 뉴타운 공용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난장트기는 단오 한 달 전인 음력 4월 5일을 기해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법성포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제전행사로 계승·발전됐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호농악회관 앞 난장 길놀음에서 시작해 숲쟁이공원 부용교에 난장기 원형을 설치, 공용주차장으로 난장행렬이 이어진다. 이후 난장 판굿, 제물진설, 제굿, 고사, 난장공연 등 본격적인 난장트기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2022 영광법성포단오제는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법성포 천년, 단오빛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된 용왕제,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해 KBS 국악한마당, KBS 전국노래자랑, 단오장사씨름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국단오가요제, 축하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꽃물결 넘치는 진도 송가인 공원서 힐링하세요”

지난해 11월 임회면에 조성
1만3473㎡ 팬지꽃 8만본

진도의 관광 명소인 송가인 공원이 꽃물결이 넘치는 거대 꽃밭으로 변신했다.

화사한 봄을 맞아 싱그러운 봄을 선사하고 있는 송가인 공원에는 형형색색 꽃물결을 일으키는 팬지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임회면에 조성된 이 공원 1만3473㎡에 팬지꽃 8만 본을 심었다.

송가인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원 외에도 인접한 송가인 마을과 송가인 길까지 이어진 유채꽃밭을 보면서 힐링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생동감이 넘치는 사계절 꽃이 피는 송가인 공원의 꽃 물결이 코로나로 지친 분들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진도군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송가인 공원에 형형색색 꽃물결을 일으키는 팬지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완도군, 고금면·노화읍·보길면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

완도군이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금면과 노화읍, 보길면에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보길 생활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축구장 본부석과 스포츠 조명,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금면 덕암리 일원에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 2만여㎡ 부지에 운동장, 다목적구장,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갖추는 고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고금 생활체육공원은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화읍에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한다. 노화읍 도청리 일원에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인조 잔디 다목적구장 2면과 야간 경기가 가능한 조명 타워를 설치하며, 올해 4월 착공,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완도읍 소프트 테니스장 관리 사무실 신축, 노화 테니스장·전천후 테니스장 아크릴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군에서 개최되는 2023년 전남도 체육대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2024년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고금생활체육공원 조감도. 〈완도군 제공〉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